

폭염·열대야·태풍...이상기후 더 심해진다

기상청 '2019 이상기후 보고서' 태풍·고수온 막대한 농수산물 피해 올해도 5월부터 이른 무더위 기승

광주·전남지역이 지난해 기후변화에 따른 이상 기후의 영향으로 농작물 피해가 극심했고, 올해에는 더 빨리 찾아오는 여름 무더위를 견뎌야 할 것으로 전망됐다. 광주·전남지역도 기후 변화의 영향으로 나타나는 이상기후 현상이 갈수록 뚜렷해지고 있다는 점에서 환경 변화에 대비하는 전략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기상청이 최근 내놓은 '2019년 이상기후 보고서'는 광주·전남을 비롯한 국내 이상 기후의 현상을 뚜렷하게 확인할 수 있

다는 점에서 관심을 모은다. 당장, 전남지역의 경우 지난해 잦은 태풍으로 입은 농작물 피해가 컸다. 지난해 7개의 태풍이 전남에 영향을 미쳤다. 특히 수확기를 앞둔 가을철, 3개의 태풍(13호 링링, 17호 타파, 18호 미탁)이 전남을 강타하면서 수확을 앞둔 전남지역 벼농사와 과수농사가 2만 8199ha의 피해를 입었다. 이 때 입은 양식장 피해액만 120억원이 넘었다. 태풍의 영향이 잦았던 이유는 필리핀 동쪽해상의 바닷물 표면 온도가 높아지면서 발생한 상층운동과 일본 부근 하강 기류가 만나면서 태풍의 길목이 한반도에 위치한 게 원인으로 꼽힌다. 폭염·열대야, 무더위로 인한 이상기후도 갈수록 뚜렷해지고 있다. 2016년의 경우 극심한 폭염·열대야가

뒤덮은 한해였다. 당시 전국 여름철 폭염 일수가 무려 22.4일(평년 9.8일)로 역대 2위였다. 열대야를 기록한 날도 10.8일로 평년(5.1일)보다 2배 가량 많았다. 당시 전남지역 과수농가들은 무더위로 1448.3ha의 피해를 입었고 일사병으로 가축 86만 2132마리가 죽었다. 고수온도 매년 광주·전남 어민들을 괴롭히고 있다. 이상 기후로 국내 바닷물 온도는 평년에 비해 2~4도 이상 높은 고수온 현상이 나타나고, 전남에서 남치·전북·동해 등 어류 4825만 7000마리가 폐사하는 등 392억원의 피해가 났다. 광주는 2018년에는 최고 기온이 38.5도까지 치솟기도 했다. 2018년 전국평균 폭염일수는 31.4일(평년 9.8일), 열대야일수는 17.7일(평년 5.1일)로 관측 이래 가장 길었다.

광주지방기상청은 올해도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으로 5월부터 기온이 크게 오르는 고온현상이 나타나는 등 무더위가 빨리 찾아올 것으로 예측했다. 2018년은 이상 추위가 나타난 해였다. 광주·전남에서는 1월23일-2월13일 강한한파로 기상관측이 시작된 1973년 이래 가장 낮은 기온(최고기온 2도)을 기록했다. 또 광주는 1월 10일 17.1cm의 눈이 쌓였다. 기록상으로도 가장 많은 최심적설량(눈이 가장 많이 쌓였을 때 측정된 눈의 양)이다. 당시, 여수·제주공항에서는 한파로 인한 항공기 결항이 잇따랐고, 추위로 병원을 찾는 환자만 전국적으로 631명(사망 11명)에 달했다. 바닷물 온도도 낮아지면서 100억여원의 저수온 피해도 발생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법정도 코로나 방역 코로나19 여파로 오는 3월 6일까지 광주·전남 관내 법원이 휴정한 가운데 25일 오후 광주지방법원 대법정에서 방역 업체 관계자들이 방역작업을 실시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광주·전남 국회 토론회 참석 66명 격리...21개 학교 폐쇄

'코로나19' 확진자가 참석한 국회 토론회에 광주·전남지역 교육계 관계자 수 십 명이 참석한 것으로 확인돼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소속 학교들은 직장폐쇄했고, 방역당국은 긴급소독에 나섰다. 25일 광주·전남교육청 등에 따르면 지난 1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사학혁신 방안, 무엇이 문제인가' 대토론회에 22개 학교 관계자 등 총 66명이 참석한 것으로 파악됐다. 광주는 모 사학법인 산하 고등학교 행정

실 관계자 1명이 참석했고, 전남은 사학법인 행정업무 담당자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관계자 등이 참석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사학법인연합회 등 4개 단체 주관으로 열린 이날 토론회에는 코로나19 확진자인 하윤수 한국교총 회장이 참석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추가 감염 우려로 논란이 일고 있다. 교육청은 참석자들이 속한 21개 학교를 이날 낮 12시부터 폐쇄하고, 긴급 방역을 실시했다. 또 토론회 참석자 전원에게 대

해 시군 보건소에서 코로나19 감염 여부를 신속히 검사토록 하고, 이들과 접촉한 사람을 추적해 추가 격리하는 등 동선 파악과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도내 전체 사립학교에 긴급 공문을 보내 교직원과 법인 관계자들의 복무관리 지침을 하달했다. 도교육청은 공문에서 ▲코로나19 예방수칙 교육과 전파 ▲코로나19 의심 직원 재택근무 ▲각종 회의 운영 시 철저한 위생관리 등을 주문했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을 첫 수능 모의평가 일주일 연기 3월 19일 시행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학교 개학이 일주일 연기됨에 따라 올해 첫 대학수학능력시험 모의평가인 전국연합학력평가도 일주일 늦춰진다. 3월 모의평가가 주관 교육청인 서울시교육청은 25일 다른 교육청 의견수렴을 거쳐 3월 전국연합학력평가를 원래 예정(3월 12일)보다 일주일 늦은 3월 19일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전국연합학력평가는 17개 교육청이 공동으로 주관하는 수능 모의평가다. /김대성 기자 bigkim@

오늘의 날씨 해돋이 07:07 해질 18:24 달뜨기 08:39 달짐 20:44

따뜻한 한낮기온
고기압 가장자리에 들어 흐리다가 오후부터 맑겠다.

광주	비운뒤 맑음	9/15	보성	흐린뒤 맑음	6/13
목포	흐린뒤 맑음	7/11	순천	비운뒤 맑음	9/15
여수	구름많음	8/12	영광	흐린뒤 맑음	6/12
나주	비운뒤 맑음	9/16	진도	흐린뒤 맑음	7/11
완도	흐린뒤 맑음	8/14	전주	구름많음	7/13
구례	비운뒤 맑음	7/15	군산	구름많음	5/12
강진	흐린뒤 맑음	7/14	남원	구름많음	7/14
해남	흐린뒤 맑음	7/13	흑산도	흐린뒤 맑음	7/11
장성	흐린뒤 맑음	6/15			

◇ 바다 날씨

	오전		오후		
	풍향	파고 (m)	풍향	파고 (m)	
서해남부	안바다	북서~북	0.5~1.5	북서~북	0.5~1.5
남해서부	안바다(북)	북~북동	1.0~2.0	북서~북	1.0~2.0
	안바다(남)	북~북동	1.0~2.0	북~북동	1.0~2.0
	안바다	북~북동	0.5~1.5	북서~북	0.5~1.5
남해남부	안바다(서)	북~북동	1.5~2.5	북서~북	1.5~2.5
	안바다(동)	북~북동	1.5~2.5	북서~북	1.0~2.0

◇ 생활지수

보통	감기	보통
보통	뇌졸중	좋음
미세먼지		

◇ 물때

	간조	만조
	시간	시간
목포	09:01 21:25	03:43 16:10
여수	04:28 16:54	10:53 23:01

◇ 주간 날씨

27(목)	28(금)	29(토)	3/1(일)	2(월)	3(화)	4(수)
☁	☁	☁	☁	☁	☁	☁
2/13	5/8	6/13	2/14	3/11	1/9	1/9

학교·유치원 석면 제거공사 '돌봄 공백' 재발 우려

시민단체 선제적 대책 촉구

광주지역 초등학교와 병설 유치원을 대상으로 진행된 석면 조사와 관련 아이들의 돌봄공백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선제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 등에 따르면 겨울 방학 동안 광주 지역 석면 제거 공사 대상 11개 초등학교 가운데 4개 학교는 인근 학교와 작은 도서관을 이용해 돌봄교실을 운영했지만, 나머지 7개 학교는 별도의 대책

이 없어 초등학교 돌봄교실 대상자 중 69%(331명)가 가정돌봄을 진행했다. 11개 병설유치원 역시 8곳이 별도의 대책을 마련하지 못해 80%에 가까운 244명의 원아들이 가정돌봄을 하는 '보육 대란'을 겪었다. 앞서 시민모임 등은 석면 제거 공사로 인해 발생한 돌봄공백과 관련해 돌봄이 필요한 학생과 원아들을 인근 지역아동센터와 연계해 돌봄이 이뤄지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광주시와 교육청에 촉구했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광주대 신학기 개강일 또 연기...16일로 1주 연장

광주교육대학교가 '코로나19' 확산세가 누그러지지 않고 있는 상황을 감안, 신학기 개강일을 1주 추가 연기하기로 했다. 당초 3월2일에서 9일로 1주 연기된 개강일이 16일로 재연기됐다. 광주교대는 개강을 1주 연기했으나, 코로나19 재난 위기경보가 심각으로 격상되고 지역사회 감염이 급증하는 등 사

태가 악화됨에 따라 추가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해 이렇게 조치했다. 또 지난 24일 총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코로나19 대응본부를 발족하고 학생지원처장이 단장, 기획처장이 부단장을 맡아 학사 지원, 학생생활, 시설-운영지원 등 분야별로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김대성 기자 bigkim@

아직도 묘지를 선호하십니까?

자연장의 장점

- 매장이나 봉안에 비해 비용이 매우 저렴합니다.
- 관리가 편하며 반영구적입니다.
- 생활공간과 가깝습니다.
- 국토를 효율적 활용 자연을 보존할 수 있습니다.

전국 3대 명당으로 꼽히는 보성을 아십니까? 그 곳에 수목장이 새롭게 오픈했습니다. 이장부터 안치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성수목장 보성군 노동면 소재

수목장 * 자연장 자연과 인간이 함께하는 새로운 장묘문화입니다. 화장한 후 잔디나 화초, 나무 밑에 유골을 묻어 고인을 자연으로 되돌아가게 하는 아름다운 장묘문화입니다.

061)322-6183